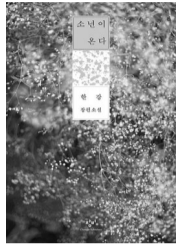


여전히 끝나지 않는 오월...그날 이후의 '광주'

소년이 온다 10주년 한정 특별판
한강 | 멀리깊이 | 1만6800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여년간의 활동을 거쳐 지난 2월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대해 광주시민들의 폐기 여론이 뜨겁다. 조사위는

심의·의결 과정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종합보고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먼저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광주전남공동체의 충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는 시민 여론이 거세다. 가장 큰 문제는 보고서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계엄군 피해와 관련 내용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5·18 왜곡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암매장, 발포 명령 등 핵심 사안은 불능 결정을 내린 것 또한 비판이 크다.

조사위가 계엄군을 집중 조사할 때, 여전히 그날의 피해자들은 끝나지 않는 오월을 겪고 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왜 5·18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여전히 전개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2014년 만해문학상,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고 전세계 20여개국



광주 신창중학생들이 지난 7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한 후 문재현(5·18 당시 고등학생)의 묘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양배 기자

에 번역 출간되며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 시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 10주년을 맞아 특별한정판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소설은 1980년 5월 광주를 새롭게 조명하며, 무고한 영혼들의 말을 대신 전하는 듯한 진심 어린 문장들로 5·18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목격한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잔혹함과 위대함을 동시에 증언하는 이 충실한 서사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인간성을 철박하게 복원한다.

소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한강 특유의 정교하고도 밀도 있는 문장으로 그려낸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도청 상무관에서 시신들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매일같이 합동분향소가 있는 상무관으로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면서 열다섯 어린 소년은 '어린 새' 한마리가 빠져나간 것 같은 주검들의 말 없는 혼

을 위로하기 위해 초를 밝히고, '시취를 뿜어내는 것으로 또다른 시위를 하는 것 같은' 시신들 사이에서 친구 정대의 처참한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한다.

정대는 동호와 함께 시위대의 행진 도중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고, 중학교를 마치기 전에 공장에 들어와 자신의 꿈을 미루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던 정대의 누나 정미 역시 그 봄에 행방불명되면서 남매는 비극을 맞는다.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박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무고하게 죽은 어린 생명들에 대한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정대의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변된다.

5·18 당시, 인구 40만의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은 80만발이었다고 전해진다. 소설은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던 형과 누나들이 겪은 5·18 전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들을 드러내 보인다. 살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스러운 고통이 되거나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이들의 모습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수피아였고 3학년 시절에 5·18을 겪은 '김은숙'은 '전두환 타도'를 외치는 데모로 접철된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담당 원고의 검열 문제로 서대문경찰서에 끌려가 '일곱대의 뺨'을 맞기도 한다.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귀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쫓겨난 '임선주'는 이후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무관에 합류하게 되고, 경찰에 연행된 후 하혈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한다. 상무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생 '김진수' 역시 연행된 이후 '모나미 불펜' 고문, 성기 고문 등을 받으며 끔찍한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결국 자살하고 만다. 소설은 이러한 국가의 무자비함을 핏진하게 그려내면서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과 악행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열다섯살 소년 동호의 죽음을 중심으로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힘겹게 펼쳐 보이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 시대를 증언하는 속명과도 같은 소명을 다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치욕이 되는 사람들이 혼자서 힘겹게 견뎌내야 하는 매일을 되새기며, 그들의 아물지 않는 기억들을 함께 나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엄마가 만드는 최초의 학군지

거실육아
임가은 | 멀리깊이 | 1만6800원



책은 거실을 아이 인생 최초의 학군지라고 정의한다. 전작 '해냄스 위치를 켜면 혼자서도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에서 혼자 사귀고 빨래 개고 새벽 공부하는 일곱 살 하준이 육아법을 소개해 큰 화제를 모은 임가은 저자는, 이번 책에서 강남8학군보다 효과적인 학군지로 '거실'을 꼽는다.

저자의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림이 깊다. 초등 특수교사로서 느린 학습자를 전담해 왔기 때문에 학업적 성취와 습관이 단지 똑똑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용품 찾느라 수업 시작 후에도 한참 동안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학용품 정리함을 교체했다. 손잡이가 달린 정리함으로 교체했을 뿐인데, 수업 전 단번에 정리함을 책상에 가져다 둔 아이들은 사물함 들락거릴 필요 없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공부하는 거실을 만드는 일 또한 정리함 손잡이처럼 아주 간단한 환경 구성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TV를 없앨 필요도, 소파를 치울 필요도 없다. 오히려 TV와 소파가 있을 때, 아이들은 흡사 마시멜로 효과가 증명된 것처럼 진짜 자제력과 학습 능력을 터득한다.

저자는 TV를 둘 것이라면 액자형 TV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평소시에는 명화나 가족 사진을 전시해 두다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영상을 틀 때만 TV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액자형 TV가 아니라면? TV 커버를 씌우면 간단히 해결된다.

마시멜로 두 개를 습득했던 아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회피와 제거 전략이었다. 마시멜로 자체를 먹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TV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마시멜로에서 시선을 거두거나(액자형 TV나 커버 활용), 다른 놀이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책을 읽거나 보드게임을 하면서) TV를 유혹의 대상이 아닌 효과적인 재미의 도구로 변환하는 것이다.

TV가 없어서 어떻게든 영상을 보려고 온갖 잔머리 굴리는 아이로 키울 것이 아니라, 있어도 굳이 볼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거실 환경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크게 네 개장에서 거실을 공부하는 곳, 몰입하는 곳, 대화하는 곳,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곳으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한다. 그야말로 아이 인생 최초의 학군지로 만드는 법이다. **도선인 기자**

삶의 기본기를 다지는 정리정돈의 모든 것

하루 15분 정리의 힘(15주년 개정판)
윤선현 | 스노우폭스북스 | 1만6800원



국내 1호 정리컨설턴트 윤선현 저자가 쓴 장기 베스트셀러의 앙코르 개정판이다. 14년간 축적된 정리컨설팅 노하우와 3000회 넘는 강연의 에센스가 새로이 집약된 책이다. 넘치는 물건 속에 살며 많은 물건에 집착하느라 쉴 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정리를 통해 더 나은 자유로움과 안정된 정서를 가질 수 있다는 모토를 제시한다.

쓸모없는데 버리지 못해 쌓아둔 물건,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한 물건, 비싼 쓰레기들 사이에서 무기력한 삶을 보내는 무수

한 현대인들을 위해 저자는 실현 가능한 정리정돈의 기술을 소개한다. 컨설팅을 통해 공간의 변화가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하며 '날마다 조금씩'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자.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정리기뭉클레'에서는 정리정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편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정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와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2부 '정리하는 습관의 기적'에서는 정리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성공한 기업인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랜드, 오케이몰, 엘로우햇 등 청소를 생활화한 경영인의 사례를 통해 정리정돈의 실질적 영향

력을 가능하게 된다. '비움, 나눔, 채움'이라는 3단계 정리 원칙은 단지 공간뿐 아니라 시간과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3부 '실천! 정리력'에는 공간, 시간,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실용적인 가이드가 세세하게 담겨 있다. 정리는 연습을 통해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기 모습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일의 생산성이 오르고, 삶에 행복감을 주는 원천은 정리정돈이다. 정리정돈을 통해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당신은 삶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을 어지럽히는 모든 군더더기에서 해방되며,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 줄 사람들로만 인생을 채우고 싶다면 이 책의 정독을 권한다. **도선인 기자**

노트북
니컬러스 스파크스 글 | 모모 | 1만5000원

출간 즉시 전 세계 수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노트북'이 전격 재출간됐다.

1998년 국내 첫 출간 이후 약 3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번역과 표지로 재탄생한 전면 개정판이다. 작가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로 알려진 이 작품은 주인공 노아와 앨리의 순애보를 그려내며 독자들의 눈물샘을 뜨겁게 자극했다. 2004년 라이언 고슬링·레이첼 맥아담스 주연의 동명의 영화로 개봉해 멜로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은 물론, 지금까지 꾸준히 회자되며 복간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세대를 막론하는 클래식의 힘으로 진정한 사랑과 낭만을 되짚고 눈부신 설렘과 감동을 선사한다.

14살의 말 공부
이임숙 글 | 21세기북스 | 1만8800원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뒷담화?', '날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꾸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

책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관계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춘기의 예민한 감정을 붙들며 마음 근육을 길러 주고,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준다. 25년간 다양한 아동·청소년을 직접 만나 이들의 섬세한 마음을 읽고 보듬으며 3만 건 이상의 심리상담을 진행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청소년기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친구 관계' 고민을 10대 눈높이에 딱 맞춘 해결책으로 술술 풀어낸다.

세계의 랜드마크와 도시
박동석 글·박진주 그림 | 책숲 | 2만원

페루 잉카인들은 왜 산 꼭대기에 공중 도시를 건설했을까?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은 어떻게 바다를 건너 뉴욕까지 갔을까? 랜드마크에 얽

힌 진기하고 재미있는 도시 이야기가 펼쳐진다. 책은 전 세계의 랜드마크와 도시 41곳을 수록, 도시의 역사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문교양 책이다.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랜드마크부터 스톡홀름의 스톡홀름 시청사, 멕시코시티의 독립기념탑처럼 다소 낯선 랜드마크까지. 인간이 걸어간 발자취와 함께 도시의 역사, 문화, 건축, 예술을 폭넓게 살펴본다.

